

조선/기계 김 현

02. 6098-6699 / hyun.kim@meritz.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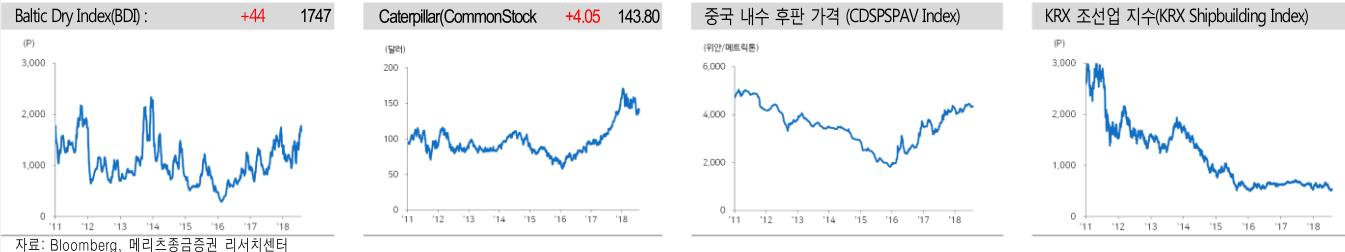


국내 주요 조선/기계 업체 Valuation

업체명	시가총액 (십억원)	외국인지분율 (%)	증가 (원)	1D	1M	3M	YTD	PER(x)		PBR(x)		ROE (%)	
				(%)	(%)	(%)	(%)	18E	19E	18E	19E	18E	19E
현대중공업	7,435.3	15.5	107,500	1.4	5.4	-10.0	12.0	74.9	35.9	0.5	0.5	0.7	1.4
현대중공업지주	5,309.4	20.8	326,000	-0.6	-7.8	-22.8	-14.4	4.4	3.7	0.6	0.5	14.1	14.7
현대미포조선	672.6	4.4	65,900	13.2	-5.9	-29.9	-42.2	6.3	5.4	0.6	0.5	9.3	9.7
현대건설/기계	1,303.7	9.0	132,000	6.5	-6.4	-30.5	-21.9	8.4	6.2	0.9	0.8	11.7	13.9
삼성중공업	4,095.0	16.6	6,500	0.8	-9.0	-11.6	0.5	41.0	20.3	0.4	0.4	1.0	1.9
대우조선해양	2,776.6	5.6	25,900	1.8	-4.1	7.9	86.3	7.2	10.5	0.8	0.7	11.6	7.2
한진중공업	1,854.0	10.3	92,700	0.2	8.0	3.6	17.8	20.0	14.4	0.7	0.7	3.6	4.8
한진중공업	299.6	6.5	2,825	-0.5	-5.2	-16.4	-14.7	56.8	142	0.4	0.4	0.7	2.8
현대엘리베이터	2,574.6	21.6	94,800	3.5	5.8	-8.8	74.3	16.7	16.3	23	20	14.6	13.3
두산밥캣	3,328.3	25.5	33,200	2.6	3.8	3.2	-7.3	12.2	11.5	0.9	0.9	7.4	7.6
현대로템	2,401.3	6.7	28,250	3.5	0.7	5.8	50.7	36.4	24.8	1.6	1.5	4.5	6.3
하이록코리아	332.8	48.6	24,450	-1.6	-4.5	-11.4	8.7	11.1	10.1	0.9	0.9	8.8	9.0
성광밴드	294.6	16.0	10,300	-3.3	-11.2	-17.9	3.2	910.5	36.9	0.7	0.6	0.1	1.8
태광	287.5	13.0	10,850	-2.3	-8.4	-24.7	-10.0	64.8	31.6	0.7	0.7	1.0	2.1
두산중공업	1,763.1	14.1	15,050	1.3	-3.8	-15.9	-2.0	23.4	9.8	0.5	0.5	2.4	4.9
두산인프라코어	2,091.9	17.7	10,050	2.0	4.3	-2.0	15.7	6.6	6.1	1.1	0.9	17.7	16.2
두산엔진	128.8	4.1	3,910	0.9	-6.0	-10.7	52.2	-7.5	-9.3	0.3	0.3	-2.7	-4.2
한국항공우주산업	3,401.9	14.4	34,900	-0.3	-15.3	-19.2	-26.4	25.3	20.1	29	25	10.9	13.1
한화테크윈	1,189.1	11.1	22,850	2.0	-2.6	-5.2	-35.7	36.1	16.3	0.5	0.5	1.8	3.3
LIG넥스원	756.8	9.4	34,400	-0.3	-14.1	-13.0	-42.5	16.2	10.8	1.2	1.1	7.7	10.9
태웅	295.1	4.8	14,750	-0.3	-9.0	-23.0	-23.8	N/A	N/A	N/A	N/A	N/A	N/A
동성화인텍	164.6	3.7	6,100	0.0	-9.0	-4.8	20.8	N/A	N/A	N/A	N/A	N/A	N/A
한국카본	245.3	12.3	5,580	0.2	-11.3	-6.8	4.1	32.6	13.4	0.7	0.7	24	4.8

주: 커버리지 업체 PER/PBR/ROE는 메리츠증권증권 추정치, 그 외 업체는 Bloomberg 컨센서스 수치 /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주요 지표 및 차트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현대미포, MR 탱커 1척 수주

현대미포조선은 내년 9월 인도 예정으로 SK해운에서 5만DWT급 MR탱커 1척을 수주했다고 알려짐. 해당 선박은 SK Energy의 석유제품 운송에 투입될 예정이며, SK해운은 앞으로 선대 개선을 추진할 전망임. 올해 글로벌 MR탱커 발주량은 32척으로, 수주잔고는 191척으로 파악됨. (선박뉴스)

Final assembly for Martin Linge platform

삼성중공업이 Topside를 제작했던 Equinor(舊 Statoil)의 Martin Linge 플랫폼이 마지막 설치 단계에 돌입했다고 알려짐. Topside 모듈을 포함한 설치를 마무리했고, 앞으로 파이프와 케이블 연결이 남았다고 알려짐. Martin Linge 플랫폼은 내년 상반기 가동될 예정임. (Upstream)

성동조선해양, 티저레이터 배포 임박

업계에 따르면 성동조선해양은 지난 5월 창원지방법원의 허가를 받아 공개매각을 결정했고, 이후 삼일회계법인과 함께 매각 작업을 준비 중임. 다음 주 내로 잠재적 투자들에게 성동조선해양 현황을 담은 소개자료인 티저레이터를 발송할 계획으로 알려짐. 대상은 국내 중소, 중견기업, PE, 해외 기업도 포함됨. (더밸)

XT Shipping feeder project could be even bigger

지난주 XT Shipping은 현대미포조선에 스크러버 장착 1,800TEU급 Feeder 컨테이너선 2+2척을 발주하고, 중국에 6척 이상의 선박을 발주할 계획으로 보도됨. 그러나 여러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XT Shipping이 현대미포조선에 기존 발주량의 2배 수준인 4+4척으로 늘렸다는 시각이 있음. (TradeWinds)

Bulkers take lion's share in scrubber fits

배기ガ스 저감장치 협회(EGCSA)에 따르면 선종별로 스크러버를 장착한 비중은 벌크선 28%, 탱커 23%, 컨테이너선 16%, 크루즈선 15%, 로로/페리선 13%로 알려짐. 5월까지 983기의 스크러버가 발주됐고, 이번 달만 71기가 발주됨. EGCSA는 2020년 1월까지 3,800기의 스크러버 발주를 전망함. (TradeWinds)

호주 AGL Energy, FSRU 공급 후보 3개사로 압축

호주 AGL Energy는 호주 최초의 LNG 수입 프로젝트에 필요한 FSRU 공급업체 후보에 Maran Gas, Golar LNG, Hoegh LNG 등 세 업체로 좁힘. 그 중 호주 Woodside와 유대 관계를 가진 Maran Gas가 가장 유력한 후보로 평가됨. Maran Gas는 대우조선해양에 용선계약 없이 FSRU 2척을 발주함. (선박뉴스)